■ 尖端技術의 産室 ■

綠十字研究所

各種 진단ㆍ藥 國 化에 注力

85年末까지 1백억 投資

綠十字는 지난 82년 4월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인가받아 유전공학·생화학·면역학 등의 연구활동을 벌여왔으나 기업내 조직의 일부로서 운영돼야 하는 점 때문에 연구원들의 연구의욕을 위축시키거나 이완시킬 우려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다투는 첨단의 연구과제를 추진하는데는 운영체제의 개선이 필요했고 연구기금을 확충키위해서도 별도의 재단설립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그래서 綠十字가 90%를, 韓一시멘트등 관계회사가 나머지 10%를 출자하는 형식으로 85년말까지 1백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아래 재단법인 綠十字研究所로 분리·발족시킨 것.

『국민보건향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면서도 만들어내기가 어렵고 이익성이 없어 아무도 만들려고 하지 않는 제품을 찾아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 우리들의 다짐입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차근차근히 시작해 보자는 거지요.』

金慶浩소장(미생물공학박사)은 綠十字研究所의 공익연구사업을 이 같이 설명하면서 만들기 힘든 제품만을 만들다보니 경쟁자가 없어 오히려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綠十字研究所는 공익사업의 하나로 외부용역 연구 지원사업도 벌이고 있다.

外部용역研究公益事業도 벌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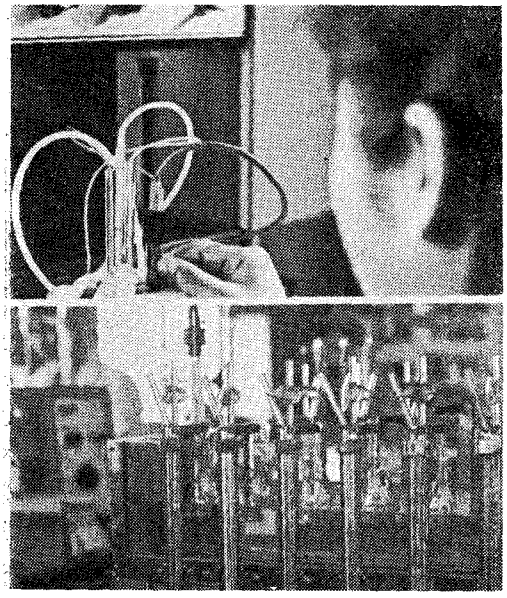
지난 1월 10일 마감한 제2차 공익을 위한 위탁연구과제 모집에서는 모두 40개 과제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30개 과제를 채택, 1억6천5백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채택된 연구과제를 보면 ▲유행성폐출혈열에 관한 연구(延大 原州醫大 崔경훈) ▲江原도 농촌일대의 B형간염 상태조사(翰林大 의학부) ▲호기성·혐기성 장내세균의 병원적역할에 관한연구(全南大 醫大)등 보건·의료·환경·위생 등의 분야에서 그동안 소외되고 뒤쳐졌던 분야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소는 이와함께 자체 연구과제로 생명공학에 관련되는 것, 전염병 진단시약의 국산화, 유전공학적인 연구등 19개과제를 선정, 2억원의 연구비를 할당해 놓고 있다.

B형 肝炎백신 完全자체개발

한편 綠十字研究所의 그 동안 연구실적을 보면 첫째 사람의 혈액으로 부터 α인터페론의 개발에 성공해 세계의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는데 현재 연고제 및 안약제제는 제품화했으며 주사제 제품화를 위해 임상실험중에 있다.

○……綠十字硏究所(소장 金慶浩)는 주식회사 綠十字가 국민보건 향상과 복지……○
○……사회건설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82년 4월 20일 설립한 재단법인체이다.……○
○……민간기업이 연고권자가 되어 재단법인 연구소를 설립한 것은 국내에서……○
○……는 처음. ……○
○……綠十字硏究所는 유전공학·생물학적제제의 신기술연구, 발효공학·국민……○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환경위생에 관한 연구를 주요 연구분야로 정해 놓……○
○……고 유전자 재결합기술·세포배양기술·바이러스배양정제기술의 연구와 백……○
○……신생산연구, 그리고 성인병 및 유전적질환에 관한 연구, 의료용구개발, 각……○
○……종 환경위생의 통계조사 등에 힘을 쏟고 있다. ……○
○……특히 연구활동의 50%만 綠十字제품연구에 할당하고 50%는 사회공익연……○
○……구사업에 치중케함으로써 공익성을 높이고 있다. ……〈編輯者 註〉……○



둘째는 효소의 고도정제법개발로 50만IU유로키나제를 생산하여 수입대체는 물론 유럽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세째 종전의 냉에탄을 분획법에 의한 알부민생산을 가온에탄을 분획법에 의한 알부민생산으로 공정개선을 함으로써 종전의 방법에 비해 중간제조공정의 생략 및 정제화로 순도와 수율향상을 획기적으로 도모했다.

이밖에도 전염병 예방접종 후의 임상반응 및 부작용에 관한 연구, 정맥용 γ 글로블린의 개발, 혈액형 판정용 시약개발 등의 실적이 있으나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연구실적으로는 B형 간염백신을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완전히 자체기술에 의해 개발한 것을 들 수 있다.

癌진단·치료제도 開發할 計劃

B형 간염백신은 美國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개발돼 세계적 권위 연구기관인 뉴욕혈액센터의 침팬지 실험을 통해 선진국 제품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는 제품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지난 1년동안 약 2백만명 이상이 접종을 받아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綠十字硏究所는 앞으로 그 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각종 진단시약의 국산화와 더 좋은 인터페론 연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한 독감·백일해·간염등의 백신개발, 혈전용해제, 특정암진단용 시약 및 암치료제 개발 등에 더욱 정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과제들은 모두 최첨단기술로서 연구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B형 간염백신에서 성공했던 것처럼 또 한번 세계의학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金소장은 자신 있게 말한다.

綠十字硏究所는 올해 안으로 京畿도 龍仁에 50억원을 들여 새로운 독립사옥을 마련, 국민보건향상과 미래 복지사회건설에 계속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